

**광주지하철 1호선
11일 완전 개통**

오는 11일 광주지하철 1호선 완전 개통을 앞두고 지난 2004년 개통 이래 '역세권(驛勢圈)'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광주지하철 역사 주변 상권이 부활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호선 2구간이 개통될 경우 6개 역이 새로 확충됨으로써 모두 19개 역으로 구성된 지하철 노선을 축으로 새로운 도심 상권이 형성될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광주지하철의 1호선 1구간이 부분 개통된 지난 4년동안 사실상 역 주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오는 11일 2구간(상무역~옥동차량기지, 8.14km)이 추가로 운영을 시작, 1호선이 완전 개통되면서 역세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

역세권 없는 광주... 이번엔?

상무역 주변 등 개발 활기...송정리역 상가 리모델링 한창

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상무역과 갑대중센터역 주변에는 상가가 잇따라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게 도시철도공사의 분석이다. 특히 송정리역과 국철 KTX 송정리역과의 연결통로 개설효과로 인해 광산구지역에서 역세권 형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송정리역 주변의 상가는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다. 이와 함께 '2010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41개 사업 가운데 42개 사업이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에 집중돼 있어 역세권 형성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기존 1호선 1구간 주민들과 상인들로 구성된 '역세권 발전협의회'에 2구간 인근

상인들까지 포함시키는 등 자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오행원 사장은 "1호선 완전 개통은 단순한 지하철 노선 확장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하철 1호선역의 경우 승객 이용률이 높은 금남로, 남광주역 주변만 상권 형성 움직임이 있었을 뿐 나머지 11개 역에서는 '지하철 특수'가 없었던 점을 들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1호선 특수역 기대하고 역내 임차공간을 빌려 사용했던 상인들이 잇따라 철시, 공동화 현상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하철 1호선 2구간 개통만으로 역세권 형성을 기대

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호선 2구간 개통에 따른 교통편의 때문에 도심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 역사 주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세권 형성의 방증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S사 관계자는 "지하철 역 주변에서 오피스텔, 원룸 등 임대거래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1호선 2구간 개통과 역세권을 연계해서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갑대중센터 역 주변의 경우 건축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역세권 기대 심리보다는 유류저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등 부담 때문에 건축주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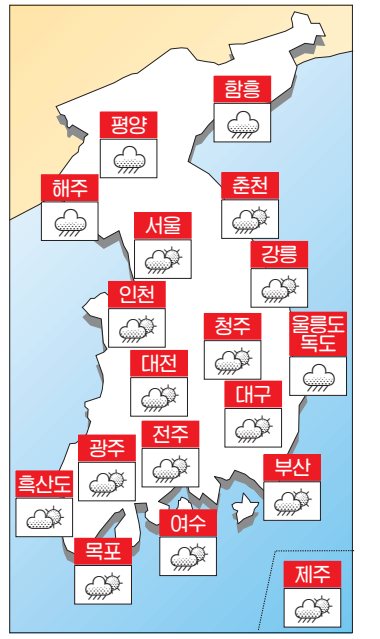
**광주과기원장
재공모 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 허성관 전 원장이 사퇴한 뒤 10개월째 공석인 광주과기원장을 공모한다. 광주과기원은 지난해 9월 한 차례 원장 공모에 나섰으나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3명이 이사회 회의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면서 원장 공백이 장기화됐다. 오는 24일까지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과기원 측은 접수된 서류를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한 뒤 원장 추천위원회를 꾸려 2~3배수로 압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가 원장으로 선임된다. 문의 062-970-2011. /정성필기자 camus@

**우산 준비하세요
비 온 뒤 점차 개겠다.**

광주	흐리고 비 후	11~21℃
주요	흐리고 비 후	10~18℃
여수	흐리고 비 후	11~17℃
완도	흐리고 비 후	10~19℃
수원	흐리고 비 후	10~20℃
대구	흐리고 비 후	9~19℃
부산	흐리고 비 후	9~20℃
인천	흐리고 비 후	10~18℃
대전	흐리고 비 후	9~20℃
전주	흐리고 비 후	9~19℃
목포	흐리고 비 후	9~19℃
여수	흐리고 비 후	10~21℃
순천	흐리고 비 후	8~20℃
광주	흐린 후	8~12℃

4월 7일
(음 3월 2일) 
◇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2:50 썰물 < 08:05
여수 밀물 < 09:48 썰물 < 03:35

▲해돋이 06:11	▲해질 18:59	▲달돋이 06:24	▲달질 20:30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날씨						
최저/최고	8/21	8/15	8/18	7/21	6/21	7/20

화순 운주사 뒷산 불... 사찰 피해 없어

와불·석탑 일부 그을려

'천불전탑'(千佛千塔)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 인근 뒷산에서 불이 나와 와불과 석탑 등 일부 문화유산이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6일 오후 2시경 화순군 도암면 운주사 뒤 천불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 3대와 소방차 10대, 화순군청 직원 및 소방대원 등 300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건조한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은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천불산 임야 10ha가 탔으

나 다행히 문화재 보호구역인 운주사 경내까지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대웅전을 비롯해 요사채, 종각, 승방 등 목조건물의 피해는 없었다. 또 연화탑을 비롯해 굴미륵석불, 운주사 9층 석탑(보물 796호), 석조 불갈(보물 797호), 원형다층 석탑(보물 798호) 등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천불산 속에 있는 천불전탑 중 마지막 불상인 길이 12m, 너비 10m의 와불과 7층 석탑, 시위불 등이 불에 그을리는 피해를 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의 말산인 화순 운주사는 도선(道詵) 국사가 세웠다는 전설과 함께 사찰 주변의 석탑들로 유명하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법당과 석불, 석탑이 많이 훼손돼 폐사로 남아 있다가 1918년에 중건됐다. 건물은 대웅전과 요사채, 종각 등이 있다. 1942년까지는 석불 213좌와 석탑 30기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석탑 12기와 석불 70기만 남아 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45분경에는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삼비산 정삼 부근에서 불이 나 임야 0.2ha를 태운 뒤 2시간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6일 오후 화순군 도암면 천불산에서 불이 나서 천년고찰 운주사와 천불전탑으로 유명한 이 사찰의 문화재가 화염에 휩싸여있다. 불은 사찰 바로 옆까지 번졌으나 일부 석탑이 그을린 것을 제외하고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초여름같은 휴일

광주 23.5도...울 최고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울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7일에는 약한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면서 남풍류에 동반된 따뜻한 기류가 강하게 유입돼 6일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5~8도 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울들어 가장 높은 23.5도였으며, ▲순천 22.5도 ▲북포 21.5도 ▲장흥 21.4도를 기록했다. /김필성기자 kps@

"무등산 약수 안심하고 드세요"

광촉매살균시설 8월까지 9곳 추가 설치

오는 8월까지 너덜경 등 무등산 약수터 9곳에 광촉매살균시설이 설치돼 고질적인 수질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6일 "너덜경과 평두메, 충장사, 꼬막재 등 무등산 약수터 9곳에 오는 8월까지 2억5천 만원을 투입해 광촉매살균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수정과 음수대 중간에 강한 살균력과 향균, 탈취 기능을 지닌 광촉매를 설치해 살균처리하는 광촉매살균기술은 염소보다 살균력이 강하면서도 약품냄새가 나지 않고 물맛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중머리

재와 청풍원터에 5천400만 원을 들여 광촉매 살균시설을 설치하고 집수정을 교체한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등산객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9%가 '좋은 느낌' 또는 '상쾌하다'고 답했다. 수질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무등산 도립공원내 약수터는 표충수 9곳, 지하수 4곳 등 총 13개소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5천여명에 이른다. 돌샘과 덕산샘 등 2곳은 수량이 부족해 광촉매살균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새끼 품고 火魔 이긴 어미개의 모정

새끼들을 품에 안고 화마를 견뎌낸 어미개의 모정이 화제를 낳고 있다. 광주동부소방서는 지난 5일 오후 9시13분경 광주시 북구 중흥동 최모(62)씨의 단독주택 지하 보일러실 화재현장에서 몸 전체가 그을린 채 감아지들을 품고 있던 어미개를 구조했다. 구조대는 이날 화재현장에 도착한 집주인 최씨로부터 지하에 갇

힌 어미개와 새끼들(사진)을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구조대원들은 화재가 시작된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가 화재를 진압한 뒤 개집에서 사냥개 암컷 한 마리와 생후 2~3주 지난 새끼 6마리가 함께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어미개는 겁에 그을려 있었지만, 새끼들은 어미개 품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동부소방서 구조대 관계자는



"뜨거운 불길을 견디며 새끼들을 지켜낸 어미개의 모정에 감동을 받았다"며 "돈 때문에 가족마저 버리는 요즘 현실 속에서 어미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 준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

(주) 조이트레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가 37번길 2
대표전화 (062) 234-3222

111㎡ (33평) 2층	329,000
111㎡ (33평) 2층	369,000
111㎡ (33평) 2층	389,000
111㎡ (33평) 2층	399,000
111㎡ (33평) 2층	829,000
111㎡ (33평) 2층	649,000

9월 가계의 당!
가득 한국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내인동

내인동의 정수정, 양호영 2부 작품

111㎡ (33평) 2층
대만 / 아류 / 화현
649,000

111㎡ (33평) 2층
대만 / 대우 / 아류 / 화현
699,000

무등산 약수 안심하고 드세요

111㎡ (33평) 2층	783,000
111㎡ (33평) 2층	799,000
111㎡ (33평) 2층	819,000

111㎡ (33평) 2층
1,499,000

111㎡ (33평) 2층
199,000